

경남 하동지역의 전통 상류주거

金 華 峰
(진주산업대 건축학부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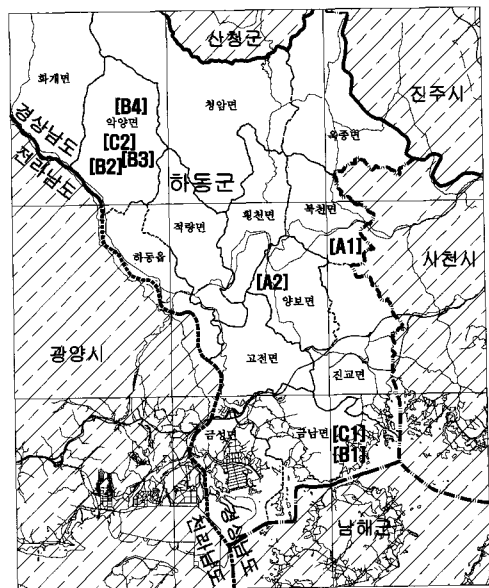
주제어 : 전통 상류주거, 향반층, 부농층, 지배층, 공루(空樓)

1. 서론

경남 하동지역은 그 동안 주거사 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하동은 서부 경남의 중심인 진주권의 문화적 동질성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지리적으로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전라도에 가장 가까워 보통 경상도와 이질적인 것으로 알려진 두 문화의 사회적 상호 교류가 많았던 곳이다. 이와 함께 해양성과 내륙성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점 등이 하동의 특수한 주거문화를 형성하게 하는 기반이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의 전통주거는 크게 지역성과 계층성을 가지며 각 시대별로 변천되어 왔다. 지역성은 다양한 건축적 특성을 만드는 환경의 차이를 반영하며, 우리나라는 평야지방과 산간으로 지형에 따라 2분되기도 하고, 북부지방,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으로 지역에 따라 3분되기도 한다. 계층성은 각 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규모나 구성에서 그 차이를 살펴보는 기준이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기

층, 中層, 上層의 주거유형으로 구분하지만,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계층간의 구분과 특성이 모호해지면서 다분화 되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¹⁾



<그림 1> 연구대상의 위치도

1) 전통주거 유형의 분류는 학자마다 다양하다. 주남철(1965)은 서민, 중류, 상류로, 김홍식(1980)은 소농, 중농, 대농으로 구분했다. 최일(1989)은 중상류주거를 조선전기에는 향반층과 사대부층으로, 조선후기의 부농층,

[표 1] 연구대상 주거 목록

번호	이름	주소	소유자	건축년대(안채/사랑채)
A1	북천 문씨고택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1191	문여황	조선 중기 / 1592
A2	양보 정씨고택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54	정구용	1915년경
B1	금남 경본채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663-1	하동정씨문중	1918
B2	악양 이씨고택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163	이형규	1925
B3	악양 강씨고택	하동군 악양면 정동리 489-1	강우곤/박선순	1920년대
B4	악양 김씨고택	하동군 악양면 동매리 495	김정현	1925~1927
C1	금남 정씨고택	하동군 금남면 대치리 658	정순태	1909~1915
C2	악양 조씨고택	하동군 악양면 정서리 808-1	조한승	1918 / 19C중반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성과 계층성에 따른 관점에서 전통 주거유형을 고찰하는 것이며, 그 중 지역적으로는 경남 하동, 계층적으로는 상류주거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의 선정은 하동군의 도움을 얻어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전통 상류주거의 지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선행조사를 실시하여, 네 채 이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 상류주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현대적 변형이 이루어졌더라도, 원형을 파악하기에 무리가 없는 8호의 주거(<표 1>참조)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측 조사하였다. 이들의 건축 시기는 조선 중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르는데, 맥락적으로 전통주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수적인 한정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²⁾ 연구의 진행은 2005년 7월 ~ 10월에 3명의

지주층, 세도가층으로 구분했다.

2) 연구대상 중 많은 사례가 일제강점기까지 계속 증축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 근대한옥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대부분의 하동 상류주거들이 근대적 재료(적벽돌, 유리창호 등)를 사용한 흔적이 거의 없으며, 공간적으로 숙복도 등의 형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의 건축에서부터 포괄적 연장선 속에서 전통 주거라 칭하였다.

건축역사연구 제16권 1호 통권50호 2007년 2월

연구생의 도움으로 1/100m의 정밀도로 현장 조사 및 보완조사가 실시한 이후 도면을 전산화했다.

연구대상의 주거 유형은 지역적으로 남부형에 속하므로 분석에 앞서 남부지방의 전통 주거 유형의 고찰을 먼저 실시하였고(2장), 계층적 유형은 조선 후기의 상류계층을 3분한 최일³⁾의 분류를 바탕으로 鄉班層, 富農層, 支配層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기준으로 계층별 공간의 특성을 분석(3, 4, 5장)하였다.

여기서 鄉班層은 오랜 세월동안 주거유형의 공간적 축적이 두드러지는 주거이며, 특히 안채가 민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주거를 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A형) 富農層은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 혹은 일제강점기에 안채가 새로이 지어진 주거유형으로서, 자본의 축적으로 이루어진 근대적 특성이 반영된 주거를 구분하였다.(B형) 支配層은 흔히 세도가의 지위를 누렸던 주거로서 공간의 구성이 지역적 특성을 넘어서는 유형이며, 별당 등의 접객기능이 두드러진 유형이다.(C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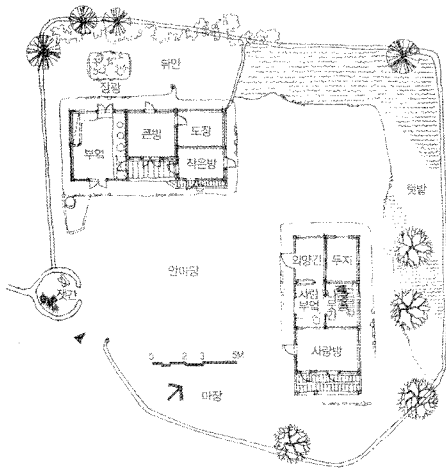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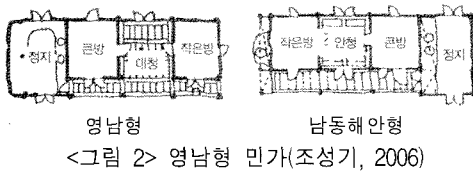
이들의 특성을 다시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분석(6장)하였다.

3)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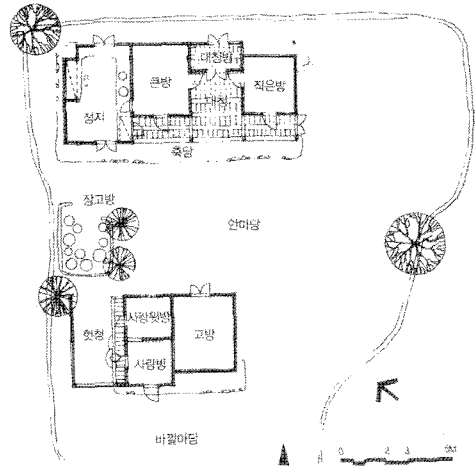
2. 남부지방의 주거 유형

남부지역에 관련된 주거의 유형적 구분은 이영택(1965), 김정기(1970), 주남철(1980)이 모두 '남부형' 혹은 '남부지방형'으로 구분하였고, 조성기(1985)는 남부지방의 주거유형을 '영남형'과 '호남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남동해안형'과 '호서형'을 세분하여 추가하였다.4) 조성기에 따르면 '영남형'과 '남동해안형'이 다른 점은 안채 마루 앞에 있는 문의 유무이다. 본 연구의 조사지역인 하동은 '남동해안형'에 속 하는 지역이므로 모든 안채의 마루 앞에는 여단이문이 달려 있다.(그림2 참조)

여기서 사랑채가 형성된 민가는 하나의 마당을 중심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직교하고 있는 튼 ㄱ자형의 주거유형이 되며(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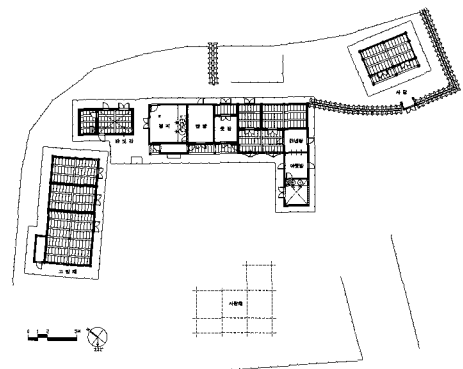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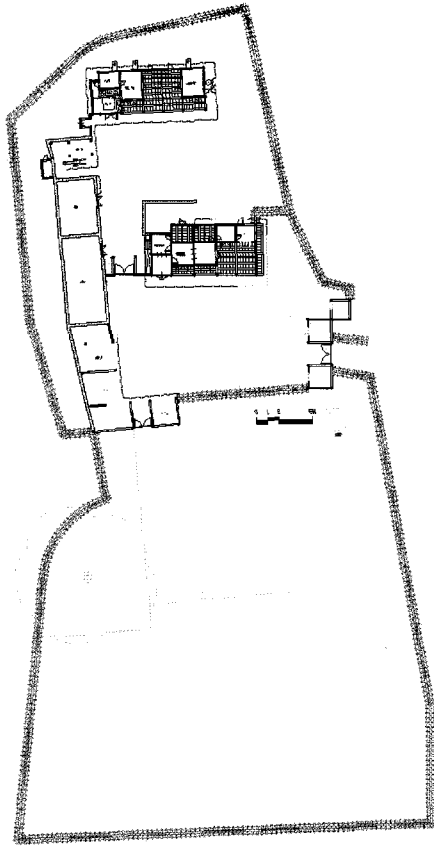
4) 조성기는 민가의 유형을 ①기분형, ②중부형(서울형), ③영남형(동남해안형), ④호남형(호서형), ⑤북부형(함경도형, 영동형, 안동형, 황해도형), ⑥제주도형으로 구분했다.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이보다 외부공간이 넓은 집은 안채와 사랑채가 2차형으로 배치되어 각각의 마당을 갖는 유형이다.(그림4 참조)

상류주거는 채가 3채 이상 형성되어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 口형의 구성으로 배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특성은 남부지방의 영남과 호남이 거의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상류주거 중에서도 향반층과 부농층의 주거는 민가형과 평면적으로 유사하지만, 지배층 주거는 지역성을 벗어난 경우가 많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호남형으로는 보성 이범재가옥, 구례 운조루, 해남 녹우당 등으로 안채의 형식이 중부형인 ㄱ자형이거나(그림5 참





<그림 6> 영남 상류주거(진주 이창훈 가옥) 배치도(김화봉, 2001)

경남의 하동 인근 전통 상류주거 유형은 산청의 남사마을(울산대, 1983), 거창의 황산마을(김화봉, 1991), 진주의 청원마을(김화봉, 2001)의 주거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안채 평면은 모두 영남형의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배치는 ㄱ자형을 취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지배층 주거를 대표하는 주거의 사례로는 함양의 정여창고택, 허삼들 가옥, 함천의 묵와고택 등으로 안채 혹은 사랑채의 구성이 ㄱ자형의 평면을 이루며 전체적으로는 ㄷ자형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3. 하동의 향반층 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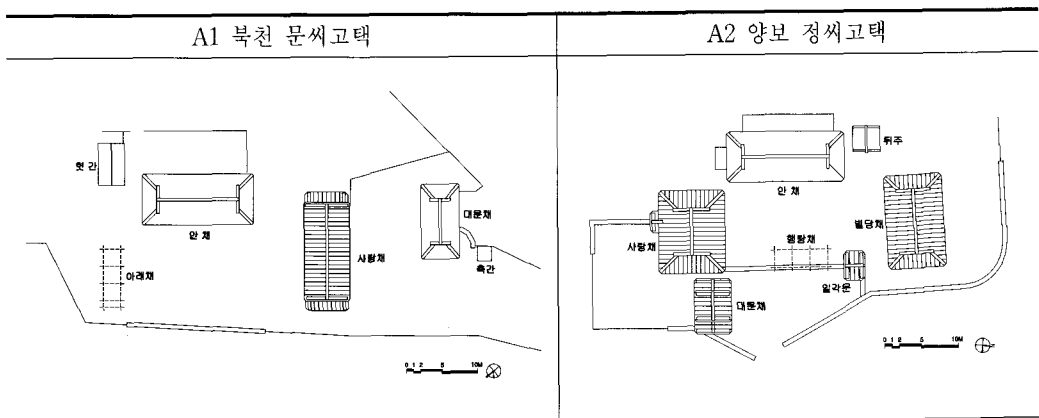
향반층 주거의 사례는 2호가 조사되었다. 이 두 채의 분류기준은 우선 입향한 시기가 오래 된 주거 즉 종가이며, 여기에 안채가 모두 민가형이라는 것이다. 현재 안채의 지붕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나, 원래 초가였다. 그러나 모두 네 채 이상의棟이 있었고, 사랑채는 모두 와가로 되어 있다. 안채의 구성보다는 사랑채의 기능이 강조되어 있는 특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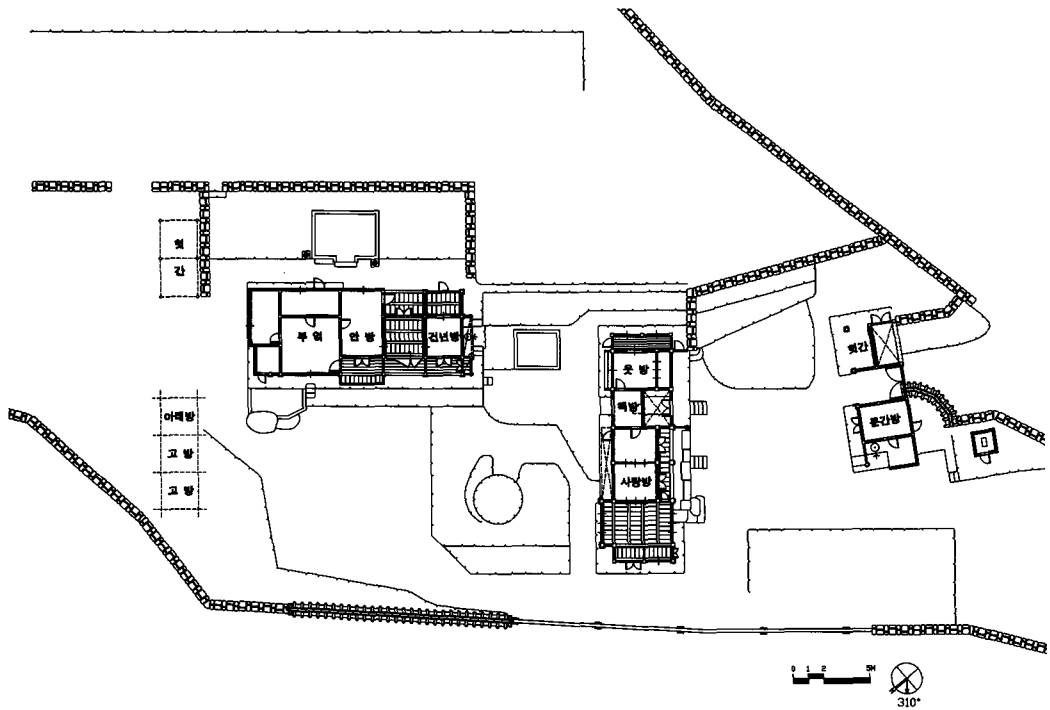
조), 배치가 ㄷ자형의 구성을 취하지 않고, ㄱ자형의 배치를 취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3-1. 북천 문씨고택의 공간구성

북천면 직전리는 남평문씨(南平文氏)의 씨

[표 2] 향반층 주거의 배치도





<그림 7> A1 북천 문씨고택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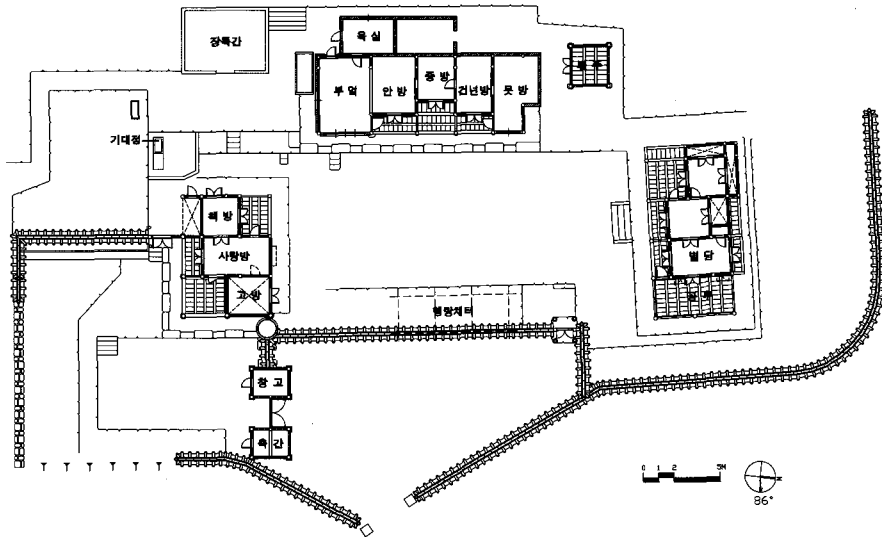
족마을로 문선공(文宣公) 문익점(文益漸, 1329~1398)의 후손으로 문선공 이후로는 강성(산청군 단성면, 당시 진주관할, 문성공이 살던 곳)을 관향으로 하여 강성 문씨(江城 文氏)라고도 하는데, 임난 이전에 이곳 하동에 터를 잡아 대대로 내려 왔는데, 그 중 종가인 집이 이 주택이다. 안채의 건축연대는 알 수 없고, 사랑채는 임난 직후인 1592년 건축되었다고 구전하는데, 확인할 수 없다.

이 가옥의 배치형식은 평행하게 二字型으로 구성된 대문채, 사랑채가 있으며, 이들과 직각방향으로 있는 안채가 있어 모두 세 채로 이루어져 있다. 원래는 아래채가 안채의 북쪽에 있었으나, 노후화되어 철거했다고 한다. 지형이 북서쪽을 향하고 있으므로, 안채는 지형의 방향에 맞추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사랑채와 대문채는 안채와는 직교되게 남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안채

의 좌향을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일반적 구성에 맞춘 것과는 달리, 動的인 사랑채 및 대문채의 좌향은 진입방향을 향하면서도 남쪽을 면하도록 하여 지형적 기능성과 환경적 적응성을 동시에 취할 수 있도록 배치한 융통성이 발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적 구성은 후면에 넓은 텃밭을 두고 횡방향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평탄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때 주로 사용하는 산간지역의 구성방법으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고저차를 극복하고 동선의 원활성을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 보인다.

내부공간의 구성은 특징은 민가형 안채와 반가형 사랑채라 할 수 있다. 안채는 전형적인 동남해안형 민가형⁵⁾인 안채의 마루 앞에

5) 조성기(2005)는 남부지방의 민가를 영남형, 동남해안형, 호남형, 호서형으로 구분하였고, 하동은 동남해안



<그림 8> A2 양보 정씨고택 평면도

문을 달은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부엌 고간의 후면과 측면으로 변형이 많이 이루어 졌지만, 구조의 원형은 유지하고 있다. 사랑채는 지형의 경사를 따라 가장 낮은 곳인 서쪽 間에서부터 사랑부엌 위에 마루를 구성하였고, 큰 사랑방 2 간과 옷방(작은사랑)의 사이를 통내간으로 구성하여 함실아궁이를 두었다. 그 위를 다락으로 만들어 양쪽 방에서 출입할 수 있게 하였는데 책방이다. 그 출입문의 의장이 매우 독특하여 여간한 사대부가의 장식담지 않게 정성을 들인 것이, 굵은 원기둥을 쓴 것과 함께 이 사랑채의 특징이다.

3-2. 양보 정씨고택

양보면은 하동의 남쪽 내륙에 위치한다. 북으로 황치산(460m), 남으로는 멀리 금오산(849m), 동으로는 이명산(570m)이 서로는 장안산(448m)이 둘러싸고 있는 양보는 하동에서도 풍요한 들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장암마을은 장안산의 동쪽 사면에 위치한 마을로

영일정씨(迎日鄭氏)가 오래 터를 정하고 살았다. 영일정씨가 하동에 들어온 것은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둘째 아들(鄭宗本, 11世)이 귀양 온 숙부를 따라 진주에 정착한 이후, 그의 후손인 정기(鄭山夔, 18世, 1614~1672)가 하동에 입향(入鄕)하고 나서부터이다. 장암마을의 영일정씨 고택은 현재의 주인(29世)이 9대째 살고 있다.

이 가옥은 전체적으로 동향의 자리 잡아 뜰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솟을대문, 사랑채, 안채, 별당, 행랑채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랑채는 10여년 전에 노후화하여 철거하였다고 한다. 지형에 따라 동향한 안채를 중심으로 남측에는 사랑채가, 북측에는 별당이 있는데, 각각 남향하여 있다. 마을에서 진입하여 긴 길을 따라 올라가면 도로에서 담으로 구획된 앞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남쪽인 왼편으로는 사랑채로 들어가는 솟을대문이 있고, 우측인 북측으로는 일각문이 있는데, 안마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협문이다.

안채는 넓은 마당(행랑채터)을 앞에 두고

형 민가 지역에 속한다.

높은 기단 위에 있는데, 전면 5간의 뒷집이다. 원래 초가의 구성이었으며, 1915년경에 구조는 그대로 두고 기둥을 굽은 원주로 바꾸었다. 정지, 안방, 중간방, 건넌방, 못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루방은 없고, 전면 중앙의 3간에 퇴판 두었다. 다만 한 가운데의 사이방의 앞의 마루를 더 깊게 하여 기능이 편리하게 하였다. 지금은 입식으로 개조하였다. 안방의 남측면에는 장독간을, 북측면에는 뒤주 1간을 독립해서 두었다. 10여년전까지는 안채의 전면에 3간의 행랑채가 있었다고 하나, 쇠락하여 철거하였다고 한다.

사랑채는 대문간과 평행하게 놓여 있는 팔작집이다. 동쪽 경사면에 남향하여 있으므로 행랑마당은 낮게, 사랑마당은 높게 형성되어 있고 규모는 작다. 사랑마당은 의 화계를 꾸며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마치 별당 같이 꾸몄다. 사랑채는 예전에 안채와 평행한 방향으로 대규모의 건물이었는데, 조선 말기에 호화 주택의 감사가 있다고 하여 원래 규모의 1/4로 축소하였다고 한다. 현재 규모는 전면3간, 측면 2간이다. 책방과 사랑방 사이에 담을 설치하여 안채로 출입문하는 일각문을 두었는데, 이 일각문을 들어서면 기대정(幾代井)이라 이름 세긴 비석과 샘이 있다. 이 집의 자손이 차나무를 많이 심어 이 물로 차를 달이는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와 차의 정서가 고스란히 주택에 배어 있는 하동 차 문화의 대표적인 가옥이라 할 수 있다. 동남쪽 끝으로는 마루를 두고, 사랑방은 전면에, 책방은 후면에 각각 뒷마루를 두어 안사랑과 바깥사랑의 구분을 두었다.

별당은 안마당의 북측 면에 남향하여 있는 팔작지붕의 건물로, 전면 4간, 2간의 겹집이다. 사랑채의 규모보다 크다. 서쪽 끝에는 한간의 누마루와 방을 두고, 가운데 2간은 퇴와

방으로 꾸몄고, 동쪽 끝은 2간을 모두 누마루보다 높은 공루(空樓)로 만들었다. 접객의 역할을 위주로 한 공간구성이다. 특히 공루는 바닥을 뒷마루보다 60cm이상 높게 하고, 삼면을 틈워 조망성과 시원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하여 공간의 운치를 더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들 향반층의 주거는 안채는 민가의 특성을 유지하며 오랫동안 정통을 지속해온 보수성이 강한 공간으로 존재하면서도, 사랑채의 공간은 시대상황이나 가정의 여건에 따라 적당히 변화를 주면서 변화해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상류주거 중에서 대부분 종가의 자격을 가지는 주거로서 적지 않은 사례가 있어야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주거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하동이라는 지역 여건이 향반을 유지하기 어려운 해안가의 위치라는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의 사례가 이 지역에서는 더욱 가치 있는 유적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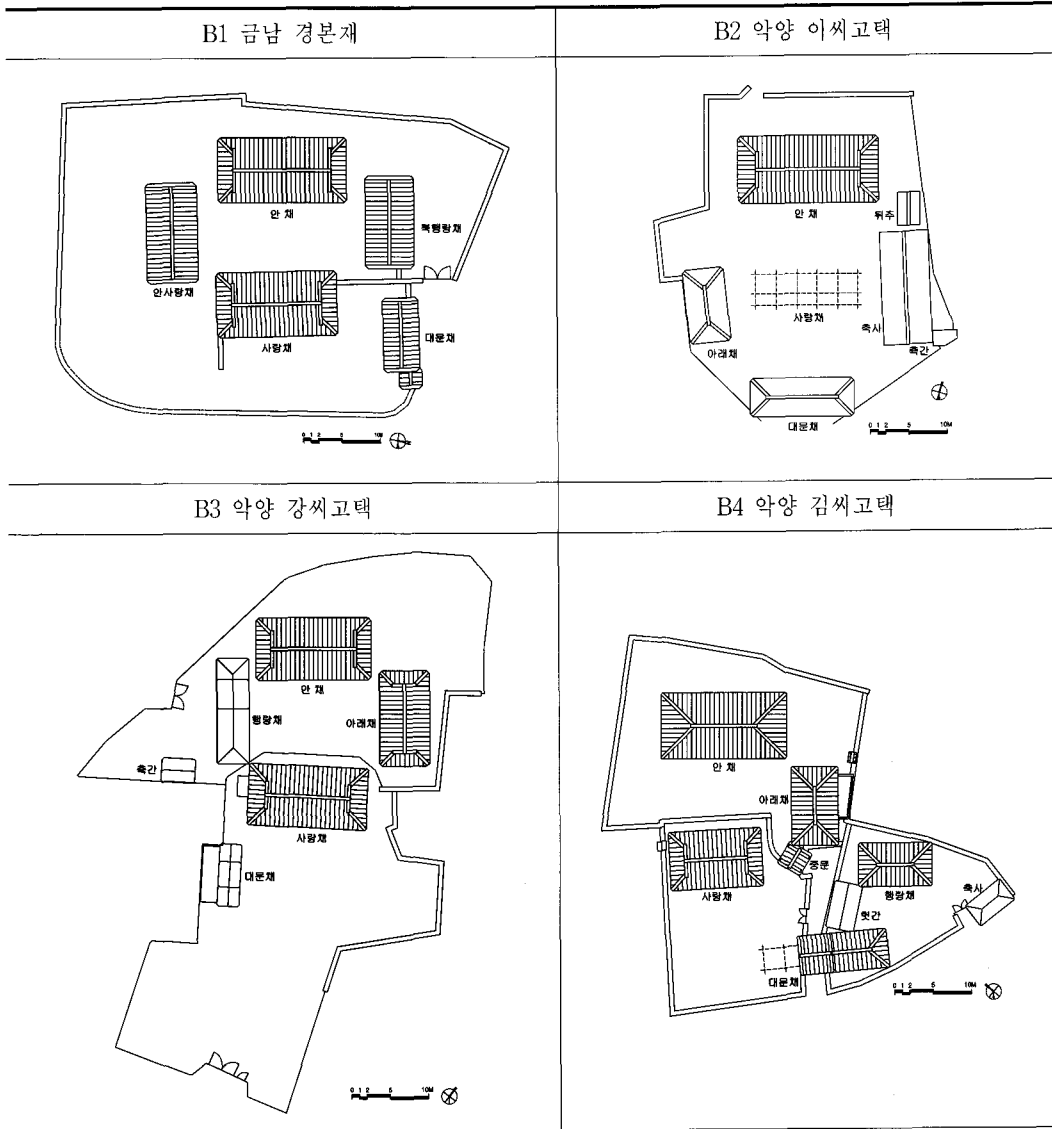
4. 하동의 부농층 주거

하동의 부농층 주거는 가장 많은 비중으로 네 채의 사례가 있다.(<표 3> 참조) 조선 후기에 형성된 농법의 개량과 경제활동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자본을 축적한 향반들이 기존의 주거를 다시 지어 새로운 평면의 건축으로 만들어진 경우이며, 살림을 나간 이들의 지차의 아들들인 경우도 있다. 그만큼 근대적 주거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주거라 할 수 있다.

4-1. B1 금남 경본재

하동에서 남동쪽인 금남면의 주산인 금오산을 뒤로하고, 동남쪽으로 경관 좋은 남해의 다도해를 바라보며 자리한 대치리는 금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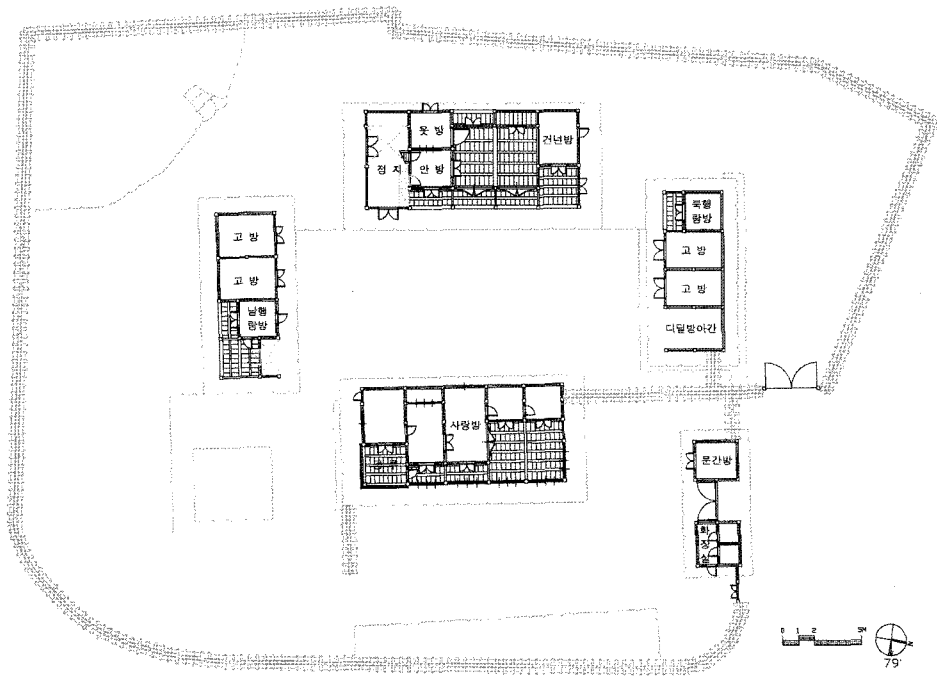
[표 3] 부농층 주거의 배치도



의 부자 마을로 유명하다. 이 마을은 진양 정씨(晉陽 鄭氏) 은열공파가 오랫동안 세거해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 가옥으로 종가인 정씨고택이 있는데, 이 가옥은 1915년에 완공된 건물인데 이집의 동생집이 경본재이고 1918년에 건축되었다.

물헌고택과 함께 대치마을의 진양정씨 주거 중에서 물헌 정재완의 동생 집으로 비슷

한 시기에 건축된 집이 경본재(景本齋)이다. 이 집은 물헌고택으로 들어가는 마을의 입구에 있으며, 앞으로 넓은 들이 있어 부지가 높지는 않아도 전망이 넓게 확보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집은 안채의 상량에 1918년 3월 7일 立柱, 사랑채의 상량에 1918년 3월 25일 立柱라 적혀있어 건축의 과정이 원만히 잘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B1 경본재 평면도

채의 구성은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ㄷ자형의 배치로 지형에 따라 동향하고 있다. 모두 일자형으로 사랑채와 안채가 평행하게 있으며, 안마당의 남쪽으로 아랫채, 북쪽에는 고방채가 위치한다. 이 네 채 외에 대문채가 있는데, 사랑채로 들어가는 진입방향은 사랑채의 전면에 두지 않고, 측면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원래는 사랑채의 전면에 대문간을 포함한 행랑채가 있었다고 하며, 지금의 대문간(國泰門)은 2003년에 신축한 것이다. 이 집은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ㄷ字型的 구성을 유지하고 있는 주거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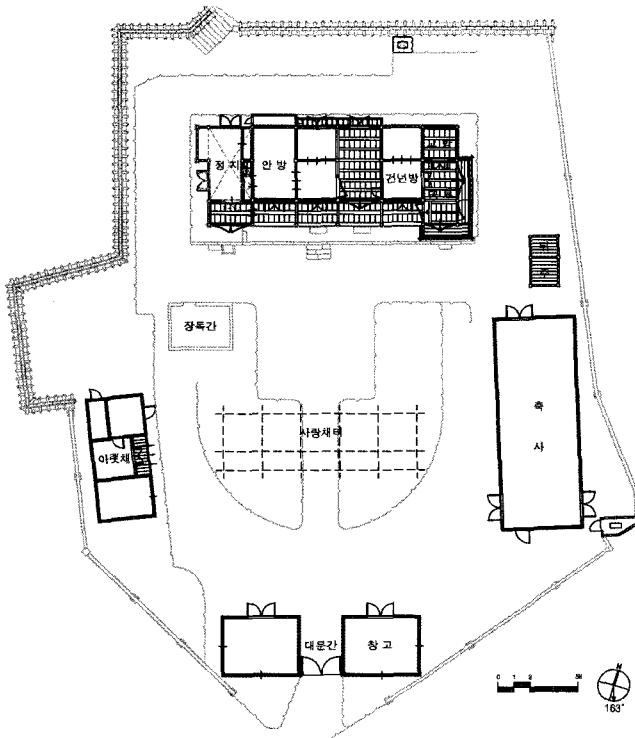
안채의 구성은 완전한 5×2칸 규모의 곁집의 구성으로 남부지방에서는 보기 드문 형태이다. 근대적 구성이 하동에 도입된 대표적인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채의 중앙에 2×1.5칸 규모의 안마루를 중심으로 여유있는 공간구성을 이루었다. 사랑채도 안채와 같은 규모로 만들었는데 사랑마루를 대문채가 있는 북쪽에

2×1.5칸의 규모로 만들고 뒤쪽으로는 감실을 두었다. 퇴를 전면에 두고 문으로 막은 안채와 달리, 마루와 퇴를 복합적으로 만든 동적인 구성이다. 사랑부엌 위로는 공루를 두었다. 남쪽의 행랑은 안사랑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남향한 방과 마루를 두었고, 특히 마루의 동쪽으로 내정을 구성해 방형의 정원을 꾸민 것이 당시에 유행하던 일본식 기법이 아닌 전통적 기법의 구성으로 방지에 방도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나, 지금은 연못이 말라버려 안타깝다.

4-2. B2 악양 이씨고택

악양의 역사는 삼한시대부터 시작되는데, 이곳은 변한(弁韓)의 12개 부족국가 중 하나인 악노국(樂奴國)이 바로 여기 정서리에 있었다고 한다. 그 토성이 마을 주변에 남아있

6) 하동군지편찬위원회, 「하동군지」, 1996.



<그림 10> B2 악양 이씨고택

다. 이러한 유서 깊은 마을에 먼저 터전을 잡은 것은 전주 이씨(全州李氏)로 주변 일대가 대부분 그들의 터전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 주택은 1962년에 현재 주인인 합천이씨(陝川李氏)의 부친이 매입하여 이주하였다. 안채의 상량에 ‘開國五百三十四年乙丑三月一日立柱上樑’(1925년)이라 기록되어 있다.

이 주거의 구성은 남향의 넓은 터에 큰 규모의 기와집인 안채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후대에 개축한 블록조의 건물로 아래채, 축사, 대문채가 ㅁ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운데 넓은 마당에는 원래 사랑채가 5간의 텃집이 있었다고 하나, 해방 직후에 매각되었다고 한다. 아래채는 원래 5간의 대문채가 있던 곳으로 전 주인이 매도하였다고 한다. 이곳에 60년대 후반에 3간의 서행랑을 지었다. 대문채는 1984년에 신축한 것으로 원래 3간의 행

랑이 있던 자리이다. 이 때 축사도 같이 건축했다.

안채는 6×2.5간의 규모로 안채의 규모로서는 매우 큰 구성에 속한다. 부엌 앞까지 퇴를 두어 구성한 근대적 기법이나, 2×2간의 안방군을 만든 것, 동쪽 끝으로 공루를 둔 것, 지리산의 매우 좋은 목재를 사용한 것 등이 모두 최상의 건축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 근대 한옥이라 할 수 있다. 없어진 사랑채의 구성도 짐작에 남음이 있다. 마루의 기능이 분산되어 넓은 안청을 꾸미지는 않았다. 현주인이 안채만을 잘 관리하여 부엌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원형으로 남아있으며, 매우 보존 상태가 좋다.

4-3. B3 악양 강씨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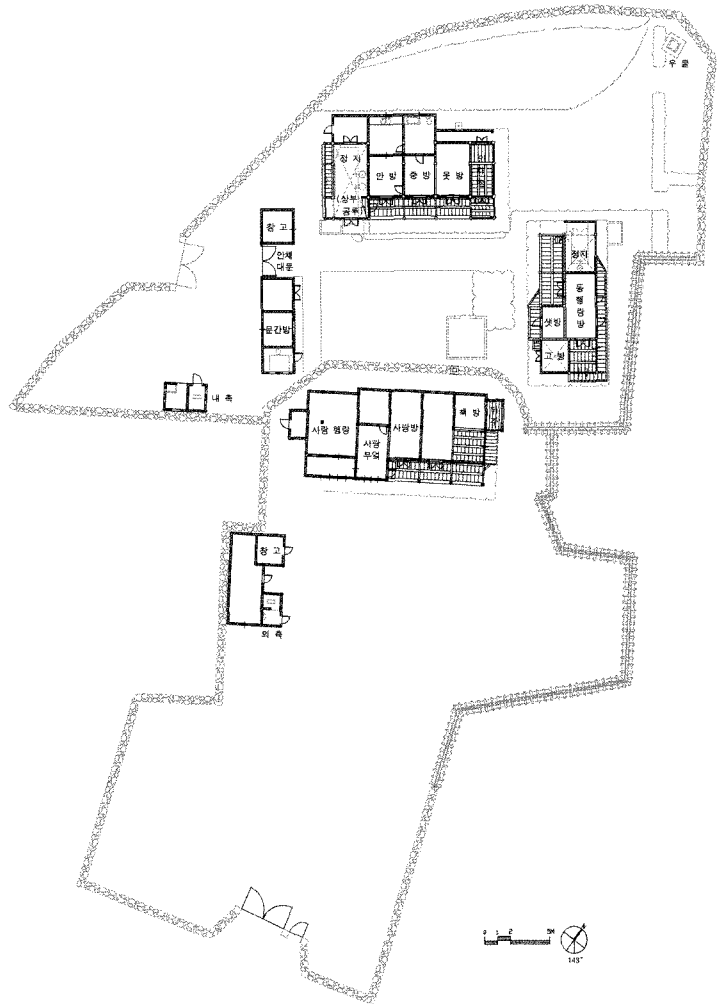
옛날 악양천의 경치 좋은 곳을 잡아 나무를 심고 취간정(翠澗亭, 비취색의 물이 흐르는 곳의 정자)이라는 정자를 만들었다. 여러 사람들이 즐겨워하였을 것이고, 그 정자가 곧 악양의 중심이 되었다. 그리하여 마을의 이름이 정자의 동쪽과 서쪽이라는 뜻으로 정동리와 정서리가 되었다.

정동리와 정서리에는 많은 부호들이 살았는데, 그 중정동리를 대표하는 가옥으로 강씨고택을 들 수 있다. 이 주택은 서부 경남의 토성(土姓)인 진양 강씨(晉陽 姜氏)의 일문으로 현 소유자의 5대조께서 터를 잡았고, 대대로 부를 누린 천석군으로 알려져 있다. 1920년대에 현 소유자의 조부께서 현재의 구조로 건축하셨다고 한다. 일본에 유학했던 현주인의 부친께서는 1930년대에 악양초등학교의 건립 부

지를 회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60년대 초반에 자제들이 서울 등으로 이주함에 따라 사랑채 부분을 매도하였고, 지금은 두 집으로 분리되어 있다. 사랑채 영역은 60년대 후반이 매입한 진양 정씨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집의 구성은 남부지방의 전형적인 배치형식인 ㄷ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평행하게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고, 동북측에 동행랑채가 위치한다. 사랑채와 안채의 서쪽측면으로 각각의 대문채가 있다. 이들은 모두 두 영역이 분리된 이후에 건축된 것이다. 사랑채를 매입한 정씨 집안에서는 그 앞집도 구입하여 넓은 마당을 확보하였고, 원래의 행랑채가 쇠락하자 대문채를 이곳으로 옮겨지었지만 출입은 사랑채의 정면으로 하게 되었다. 사랑채 뒤는 영역을 분리하기 위하여 돌담을 쌓았지만, 원래는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이 양쪽으로 있었다고 한다.

안채 영역은 사랑채 영역과 분리된 이후, 독자적인 대문간의 필요에 의해 안채의 서쪽에 원래 있던 행랑자리에 솟을 대문이 있는 행랑채를 새로 지었다. 따라서 지금은 세 채로 구성된 주거가 되었다. 이 대문 쪽으로 원래의 골목길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넓혀



<그림 11> B3 악양 강씨고택

지면서 후원이 많이 축소되었다. 동행랑채는 사랑채의 부속공간인 안사랑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그 앞으로 예전에는 셋문이 있었다고 한다. 안채 후원의 북쪽에는 우물이 있는데, 후원의 풍요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안채의 평면은 민가형의 특성을 보인다. 마루는 원래 없었으며 건넌방 끝의 마루가 수장의 기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이는 전라도의 특성과 닮아 있다), 정지간 위의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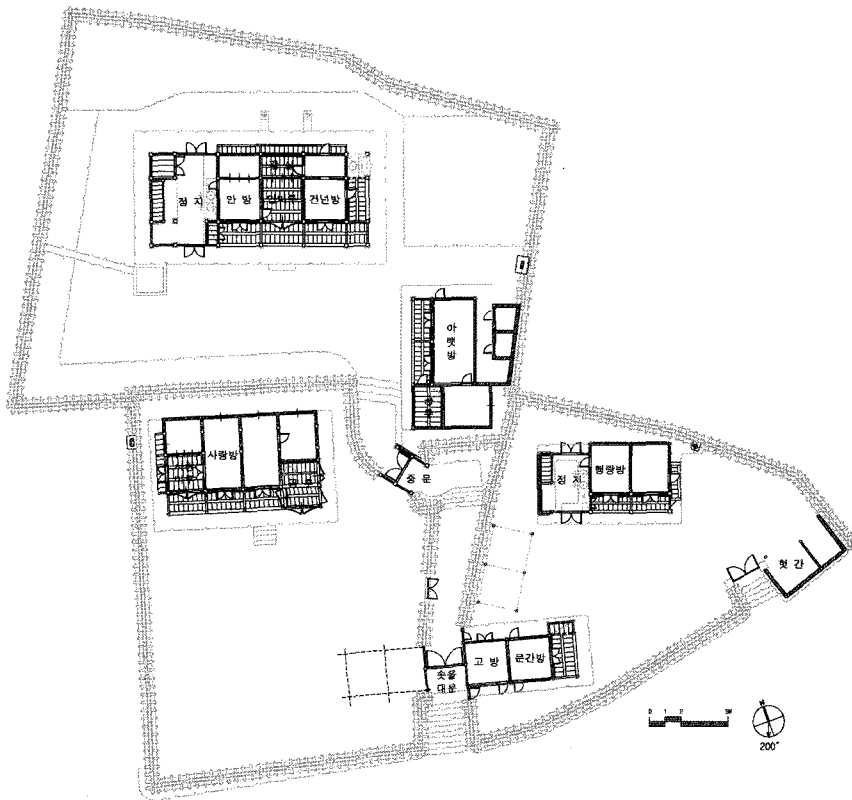
루가 매우 큰 규모로 형성되어 거실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의 구성은 규모에 비하여 소박한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중앙의 사랑 부역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분할된 영역으로 구분되었고 작은사랑쪽은 주로 머슴들이 기거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많은 노동력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의 사용을 살필 수 있다. 지금은 입식부역으로 개조되었다. 안사랑으로 사용된 동행랑채의 공간구성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안채와 사랑채에서 양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4-4. B4 악양 김씨고택

하동에서 가장 이름이 높은 고장을 들자면 악양이다. 나당연합군의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중국의 악양과 그 모습이 같다하여 이름

붙였다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소상팔경과 같이 악양팔경이 존재하며, 악양천이 섬진강으로 흘러드는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 이 악양의 많은 마을들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이 동매리이며, 이 마을에 “김부자집”으로 더 이름난 매강재(梅岡齋)가 있다.

의성 김씨가 하동에 온 것은 임난시에 전해 현감을 했던 김세량(金世良)이 하동의 흥룡마을에 처음 입향한 것이고, 그 후손인 승지겸 참찬관을 지낸 김재윤(金在潤, 1855~1937)이 명당 터를 찾아 이곳에 정주하였다고 매강재기(梅岡齋記)에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원래의 주거가 쇠락하여 노년에 아들들이 힘을 모아 3년3개월 5일 동안의 공사 끝에 새 집을 완성(檀紀二五九年丙寅二月十九日立柱上樑, 1926



<그림 12> B4 악양 김씨고택

년)한 것이 현재의 모습이며, 대문채는 1927년 11월에 완성되었다.

주거의 배치형태는 사랑채, 안채, 아래채, 행랑채, 대문채의 5채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ㄷ자형의 구성이 아니라, ㄷ자 형식의 본채 부분과 ㄷ자형의 행랑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한 사랑채와 안채의 구성도 담장으로 완전히 구분하여 출입을 달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영역성을 완벽히 확보한 구성적 특이함이 있다.

대문채(崇孝門)는 높은 담과 많은 계단 위로 놓여 있어 권위감이 높다. 이 대문채를 통하여 들어가는 사랑채는 안채와 별도의 출입을 할 수 있도록 담과 문은 두었는데, 영역의 명확한 구분을 통하여 위계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안채로의 진입은 대문간을 지나 깊은 기와 담장 길을 지나 다시 중문간을 통하여야 가능하다. 특히 중문간은 골목의 정면에 두지 않고 다시 꺾어 위치시킴으로써, 독립적이면서도 매우 깊이감을 더하게 한다. 중문 앞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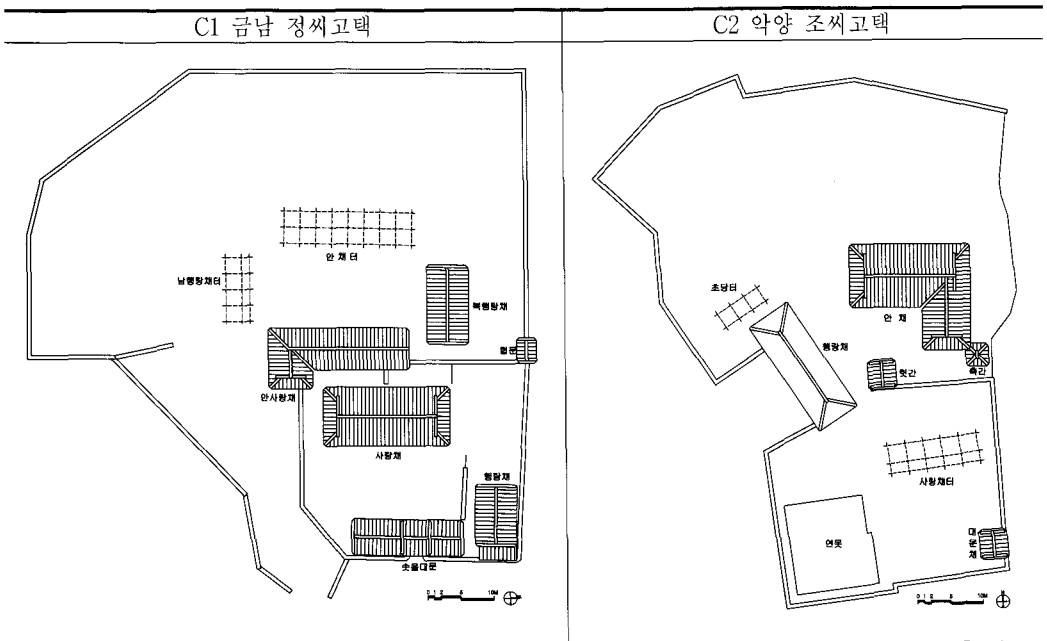
조그만 화단은 이러한 깊은 시선의 지루함을 달래주는 구성의 백미라 할 수 있다

내부공간의 구성은 사랑채와 안채가 모두 4×1.5간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전면에 모두 퇴를 둔 전형적인 조선후기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각각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의 변화는 많이 보이지 않으며, 건축시기에 비하여 전통적인 방식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된다. 단, 사랑채와 행랑채의 영역성을 명확히 하여 담장으로 구분한 것은 내부공간의 변화만큼이나 주목할 만한 것이다.

5. 하동의 지배층 주거

지배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의 규모는 하동에서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씨족의 세력이 확대 되면서 대종가로서의 지위를 점유하거나, 양반의 후손으로 재산의 경영을 소홀히 하지 않은 경우에 점차 지역의 중심세력을 점유하게 되고, 주거의 규모 또한 남다

[표 4] 지배층 주거의 배치도



른 구성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지배층 주거의 사례는 하동에서 2호가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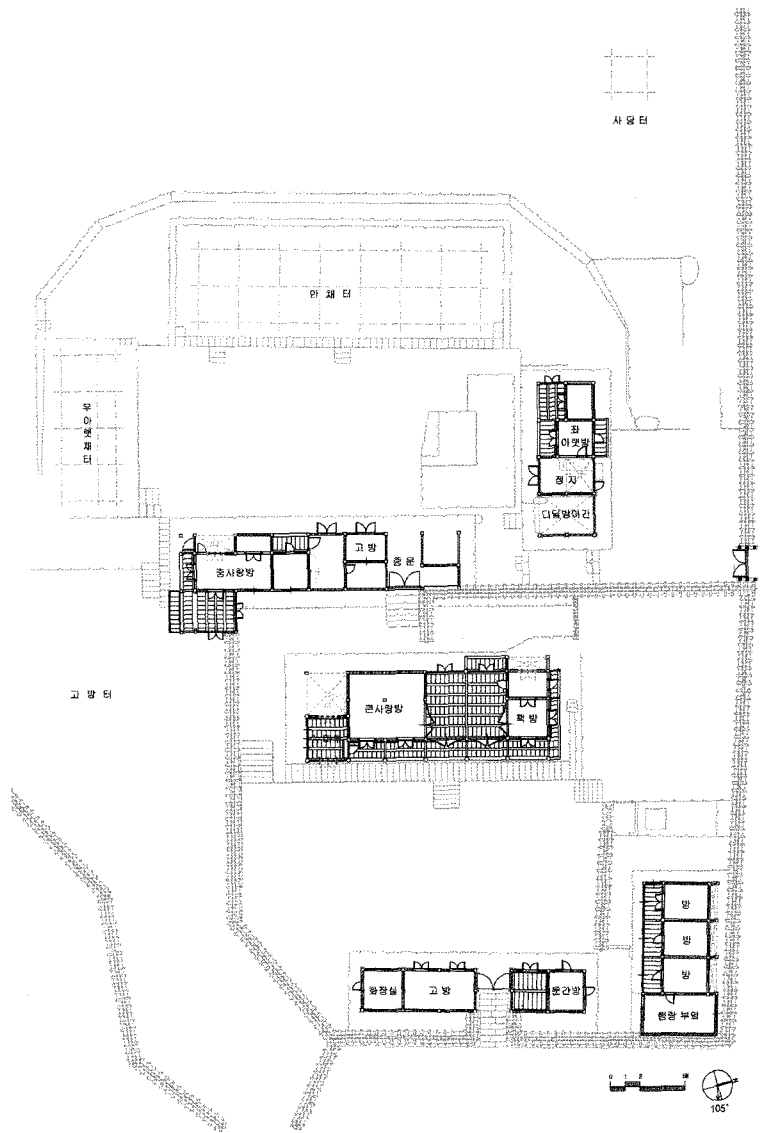
5-1. C1 금남 정씨고택

금남면 대치리는 하동에서도 부자 마을로 유명하다. 이 마을의 중심 씨족인 진양정씨는 열공파의 주거를 대표하는 가옥이 이 정씨고택이다. 이 가옥은 대한제국시기인 1909년(융희3년)에 건축을 시작하여 1915년에 완공된 건물로 독립운동가이면서 백산(白山) 선생의 심우(心友)였던 물헌(勿軒) 정재완(鄭在浣)씨가 건립하였고, 이곳에서 만석거부를 누렸던 곳이다.

마을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 주택은 전체의 일곽을 기와담장으로 둘러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남부지방 상류주택들이 대부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불안을 경계의 명확성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각 채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매우 위계가 높은 집의 구성을 이루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채의 구성은 원래 대문채, 바깥사랑채, 사랑행랑채, 중문채 겸 안사랑채, 안채, 좌·우 아래채, 고간, 가묘 등이 있었으나, 해방 후 안채와 가묘, 고간, 별당채 등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훼손되고, 지금은 사랑영역만이 원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며, 안채영역은 기단만 남아



<그림 13> C1 금남 정씨고택

원래의 영화를 기억하게 한다.

사랑채의 뒤편으로 중문간이 있는 행랑채가 있는데, 이 남쪽편에 ㄱ자형으로 구성된 안사랑채가 구성되어 있다. 남부지방에서는 흔하지 않은 구성형식으로 이 집안의 건축 안목이 높음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즉 이 지역에서의 토착적 건축이 아니라 중앙과의 교류가 많은 우월한 건축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사랑채의 전면으로는 누마루를 두었는데, 전면의 사랑채와 시선이 교차됨이 없이 먼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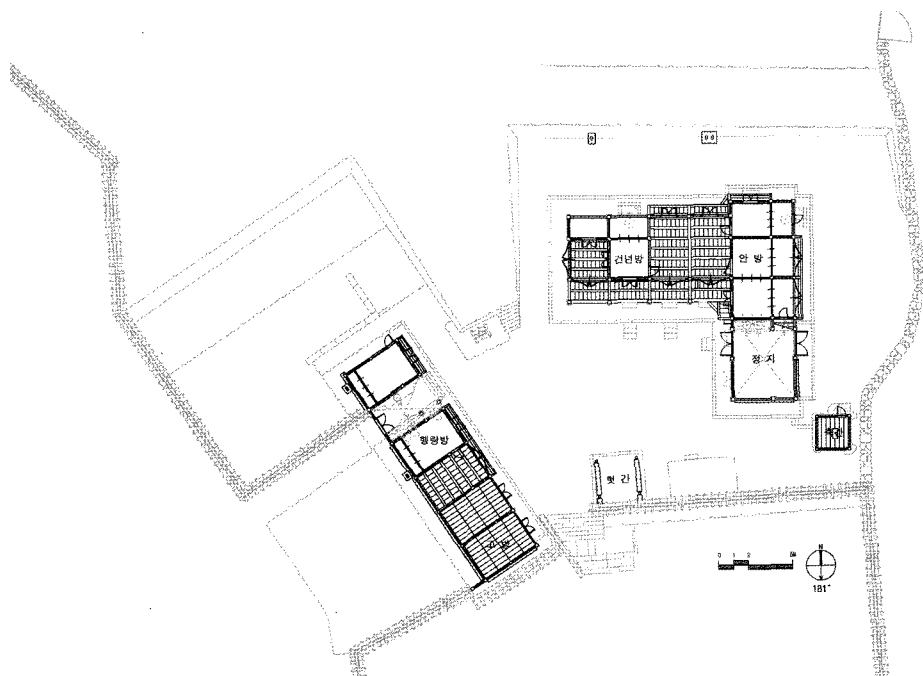
안채영역은 가운데 넓은 마당을 중심으로 남부지방의 일반적인 구성인 툇자(斗子)의 배치로 이루어져 있다. 안채와 남쪽편의 아래채는 훼손되어 남아있지 않으며, 북측의 아래채만 남아 있다.

사랑채의 공간구성은 6×2간의 규모로 이루어져 있다. 사랑정지 앞으로 공루를 두었고,

나머지 공간은 전면에 퇴를 두고, 2×1.5칸 규모의 사랑방과 안방을 나란히 두었다. 1칸의 작은사랑 뒤로는 책방을 두었다. 매우 여유 있는 공간구성으로 높은 기단이나, 장대석을 세로로 쌓은 수법에서 권위와 위엄을 느끼기에 충분한 구성이다. 안사랑은 이 지방에서 거의 볼 수 없는 ㄱ자형의 구성을 취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온 누마루는 매우 높아 멀리 남해안의 전경이 잘 보이게 구성하였는데, 마치 별장의 운치를 이루고 있다. 중앙출입을 통한사랑주인의 높은 건축안목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다.

5-2. C2 약양 조씨고택

약양의 많은 주거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집은 흔히 ‘조부자집’으로 알려져 있는 이 주택이다. 풍양조씨(豊壤趙氏)는 조선 태조, 정종, 태종 3대에 걸쳐 영의정을 지낸 조준(趙浚, 1346~1405)의 직계손이



<그림 14> C2 약양 조씨고택

며, 현종의 모친인 신정왕후 조씨(1808~1890)의 조카인 조재희(趙載禧)에 의해 19C 중반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중앙의 세도 싸움에서 밀린 낙향한 양반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세도가 역할을 했다한다. 이러한 배경은 약양을 배경으로 한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최참판댁’의 실제 모델에 가깝다고 하겠다. 구전에 조부자가 16년에 걸쳐 건축한 것이라고 하나, 안채의 상량에 「開國五百二十七年戊午立柱上樑」(1918년)이라 되어 있어 초기의 건물과 다른 안채의 건물로 보인다.

이 주택은 원래 사랑채와 후원에 초당과 사당이 있었다고 하나, 동학혁명에 화재를 당하고, 또한 6.25에 다시 불타 현재는 안채와 행랑채만 남아 있다. 따라서 지금의 주택은 중부지방의 일반적 유형인 ㄱ자형의 안채와 一자형의 행랑채가 앞 트인 ㄷ자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고, 사랑마당은 한쪽에 규모 큰 방지(方池)만이 남아 있다. 주거의 구성은 정남향한 넓은 터에 남북으로 긴 대지가 몇 단으로 조성되어 있다. 사랑마당은 빈 터로 남아 있으며, 사랑의 서쪽으로 안채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음을 돌계단과 석축을 통해 알 수 있다. 사랑채 영역은 이 통로에 의해 좌우로 나뉘며, 방지를 앞에 두고 넓은 터가 있어 별당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안채영역은 높은 기단을 쌓아 사랑채영역과 구분하였다. 안채의 중문이 있었을 자리에는 잘 다듬은 돌계단만 남아 있다. 이곳에는 한간의 헛간만 남아있다. 그 반대편인 서쪽에는 측면으로 돌아앉은 행랑채가 안채를 바라보며 있는데, 전면 6칸 측면 1.5칸으로 2칸의 고방과, 행랑채가 구성되어 있고 측면으로 나가는 대문간을 두었다. 안채로의 출입을 사랑으로 하지 않고 따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 옛날 많은 식솔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안채의 유형은 중앙의 2×1.5칸의 마루를 중심으로 동측으로 3×1.5칸의 대규모 안방을 두었고 서측으로 방과 마루와 수장공간을 별도로 둔 건넌방 영역을 구성했다. 중부지방의 공간구성으로 중앙과의 교류를 잘 볼 수 있게 하는 구성이다.

6. 하동지역 전통 상류주거의 특성

경남 하동지역의 전통 상류주거의 특성을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6-1. 외부공간의 특성

하동의 상류주거의 배치형태는 기본적으로 남부지방의 ㄷ자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동지역의 상류주거 중 ㄷ자형을 이루고 있는 주거는 한 사례(A1)만 있을 뿐 대부분 ㄷ자형이 주된 구성형태이다. 坐向의 구성형식은 또한 모두 背山臨水의 개념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형에 따라 반드시 배산임수의 좌향을 취하고 있는 안채에 비하여, 경사면이南向에 가깝지 않은 두 사례(A1, A2)의 경우는 사랑채의 향을 남향에 가깝도록 구성함으

[표 5] 조사가옥의 공간구성(()는 훼손된 건물)

기호	배치	안채	사랑채	공루
A1	ㄷ+一	5×1.5	6×1.5	-
A2	ㄷ+一	5×1.5	3×2	아래채
B1	ㄷ+一	5×2	5×2	사랑채
B2	ㄷ+一	6×2	(5×1.5)	안채
B3	ㄷ+一	5×1.5	5×2	안채 및 아래채
B4	ㄷ+二	5×2	4×2	사랑채
C1	ㄷ+ㄷ	(7×2)	6×2	사랑채
C2	ㄷ+ㄱ	9×2	(5×1.5)	-

로써, 안채와 직교된 사랑채의 구성을 취하고 있다. 안채의 보수성과 사랑채의 기능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 특성이다.

무엇보다도 하동 상류주거의 외부공간 구성의 특성은 규모에 비하여 보다 많은 영역으로 경계 지워져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체의 규모가 클수록 외부공간이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지지만, 하동의 경우 대지의 경계를 이루는 담장의 완결성이 매우 높은 것만 아니라, 각 영역간의 폐쇄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규모면에서 작다고 할 수 있는 향반층의 사례에서도 대문밖의 영역이 담장으로 구획(A2)되어 있으며, 건축의 연대가 오래지 않은 부농층의 경우에도 한 사례를 제외하고 안채와 사랑채의 경계가 담과 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B4의 경우는 공간의 영역이 매우 세분화된 대표적 사례이다.

이것을 인근의 서부 경남권의 담장의 사용을 비교해 보면, 산청 남사마을이 담장을 타 지역보다 높이 쌓아 2m 이상의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성 학동마을의 경우는 높어보다는 재료의 특성을 살려 담장의 상부에 퇴적암 절편을 기와를 대신하여 처리하는 등 각 지역성이 잘 살아있는 마을들이 있다. 그러나 공간을 영역화 하는 담장 본연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성을 잘 살린 것에 비한다면 하동지역의 담장구성이 보다 탁월한 건축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하동은 공간 영역성 및 경계의 세분화 경향이 타 지방에 비하여 발달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전통적으로 외구의 침입이 잦았던 남해안적 특성과 중앙 혹은 관청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하동의 지역성이 이러한 영역구성의 위요감을 높

게 형성하도록 만든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6-2. 내부공간의 특성

안채의 공간구성은 한 채(C2)만을 제외하고 남부지방의 일반적인 一자형의 평면을 취하고 있다. 또 평면구성의 경우도 한 채(A1)만이 전뒤틀집이며, 나머지는 모두 前後 뒤틀집의 구성을 취한 겹집으로 형성되어 있다. 건축시기가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 초기에 이르므로 근대적 특성이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안마루의 구성은 폭이 한 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인접한 전남지방의 일반적인 특성인 수장공간으로의 기능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으며, 안마루는 전면에 문과 벽을 둔 남동해안형⁷⁾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사랑채의 구성은 마루+큰사랑+작은사랑의 구성을 일반적으로 취하며, 두 사례(A1, B3)의 경우 큰사랑과 작은사랑 사이에 중문을 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사랑마루도 안마루와 같이 문을 달아 폐쇄적인 구성을 한 남부지방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두 사례(B2, C2)의 사랑채가 훼손되어 통계적 고찰은 한계가 있다.

내부공간의 두드러진 특성으로는 空樓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루는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발달한 것으로 파악되며, 영남과 호남지방의 규모 큰 건축에서 솟을대문에 부가되어 더러 나타나는 유형인데, 주거의 사례(영광 연안김씨종택 삼효문, 창원 김종영가옥 사미루, 등)보다는 서원(고성 수림서원, 도연서원 등) 및 재실(진주 도통사 계동문, 밀양 우경재 이척문 등)⁸⁾ 등에서 보다 많이 나타난다. 공루와 누마루의 차이는 호칭, 공간구성, 사용방법 등에

7)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pp.172~189.

8) 정경성, 「경남지역 공루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서 차이가 있다. 주거의 경우는 보성 이범재 가옥(그림3 참조)과 같이 안채에 부속한 별채의 다락을 수장기능에 휴식공간으로 다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먼저 나타나며, 영암 현종식가옥에서와 같이 생활공간(사랑채)에 부속되어 누마루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되는 것도 볼 수 있다. 공루의 구성은 다락과 누마루의 중간형식으로 다락의 개구부보다는 개방적으로, 누마루의 개구부보다는 폐쇄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동의 경우 용어의 명확한 일반화뿐만 아니라, 기능의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즉, 주거 내부에 널리 수용되어 안채, 사랑채, 아래채 등의 다양한 공간에 모두 구성되고 있다. 즉, 하동에서는 보다 보편적 공간으로 구성되어 남녀공간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7. 결론

하동의 상류주거 주거에 대한 계층의 구분을 통한 내외부 공간의 특성을 비교한 본 연구에서 얻은 공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경남 하동지역에는 8호의 상류계층의 전통주거가 파악되었는데, 이들을 구성형식에 따라 향반층(2호), 부농층(4호), 지배층(2호)으로 3분할 수 있었다. 2. 외부공간의 배치 형태는 남부지방의 일반적 구성인 ㄷ자형을 대부분 이루고 있지만, 공간의 위요성을 높이는 담장의 구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경계를 이루는 기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 내부공간은 전통적 구성과 근대적 특성을 반영한 주거가 다양한 비율을 보이지만 부농층에서 근대적인 특성이 많이 반영되었고, 지배계층에서는 지역성을 뛰어넘는 공간 구성을 보임으로서 공간적 우위성을 점유하려

는 경향이 드러났다. 4. 특이한 내부공간의 구성으로는 남부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공루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인데, 대규모 건축에서 대문간에 부속한 조망용의 공간 개념을 뛰어넘어, 보편적인 생활공간으로 변형하여 공간의 다변성이 잘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하동의 전통주거는 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나름의 계층성을 가지며 주거의 다양한 유형을 간직하고 있었으며, 건축의 활동이 근대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전통 주거의 살아있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정된 유구와 상류계층에 국한된 분석이므로, 민가 및 인근 문화권과의 후속 연구를 통하여 전통주거의 보다 정확한 특성을 고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울산대학교 건축공학과, 「전통취락실측조사연구-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1983
2. 최일, 「조선 중기이후 남부지방 중상류주거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89.
3. 김화봉 외1, 「전통 상류주거 중 동족마을에서의 평면변화에 관한 연구 -경남 거창 황산마을의 신씨일가를 중심으로-」, 동명논문지 제13권 제1호, p.p. 105~113, 1991
4. 하동군지편찬위원회, 「하동군지」, 1996.
5. 김화봉, 「전남 보성지역 전통 중·상류 주거의 공간구성」,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보 Val. 7, p.p.283~293, 2000년 2월
6. 김화봉, 「진주 淸源마을에서의 전통 상류

- 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산업과학기술연구소보 Val.8, p.p.139~150, 2001
7. 정경석, 「경남지역 공루의 건축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학위논문, 2005.
 8. 조성기, 「한국의 민가」, 한울, 2006.

A Study on the Traditional Noble House in the Ha-Dong Area, Kyeong-Nam

Kim, Hwa-Bong

(Professor, Jin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raditional noble houses style of Ha-Dong area in Kyeong-Nam. The sequence of this study is at first finding the list of survey object, and investigating of those houses, after than drawing the site and floor plan, and lately analysis the characters of inner and outer space of them. It required six month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m are as follows.

1. The noble traditional houses in Ha-Dong are found eight samples which are not noticed in academic society. 2. The constructions of noble housing in late Period of Cho-sun Dynasty are divided in three parts as a general role. Its grade is similar in Ha-Dong. The number of traditional noble house of (old) volunteer class is two cases. The (new) rich-farmer class is four cases. And there are two cases of (long) authority class. 3. The type of site plan is based on Korean south area style which is the style of departed rectangular type. But outdoor spaces are divided in several space by many fence than other area. It is the special item of construction. 4. The special character of indoor space is the use of 'Gong-ru'. It is called similar space used in top of main entrance building of large building. But it is located in various space in Ha-dong. It is included in any space of Sarang-Che, An-Che, Are-Che.

The traditional noble houses of Ha-Dong area have special spacial characters. For long time there space was developed based on local identity. And its characters was divided various classes. Thus Ha-Dong area is definite place of useful identified traditional culture.

Keywords : Traditional Noble House, Volunteer class, Rich-farmer class,
Authority class, 'Gong-ru'
